

일본지도 및 세계지도 병풍

개요

일본지도와 세계지도가 그려진 2 개의 8 절 병풍은 에도 시대(1603 년~1867 년) 이전에 제작된 희귀하고 귀한 지도 그림의 복제입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서유럽, 신대륙 등 지역에 대한 지리 지식이 극적으로 확대된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풍들은 오바마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온 것으로, 일본과 세계를 잇는 항구도시로서의 오바마의 역할을 반영한 국가중요문화재입니다. 원품은 박물관 사료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

16 세기 말에 제작된 희귀한 지도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이 장식적인 병풍에 그려진 지도는 그보다 빠른 16 세기 말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하나는 일본 열도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사용하던 지도를 바탕으로 세계 전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병풍 모두 폭 약 3.8m, 높이 약 1.2m 입니다. 지도의 경계선이나 색상, 라벨은 당시 지도 제작자가 일본이나 세계의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병풍의 역사

이 병풍들은 교토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16 세기 말 일본의 사실상 지배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 년~1598 년)와 가까웠던 다이묘가 한때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풍은 결국 오바마에 반입되어 해운업을 성공시킨 부유한 상인 가와무라 가문에 의해 대대로 계승되었습니다. 해안가의 상인 일가가 이러한 뛰어난 예술작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바마에서 무역이 번창하여 장사꾼들이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시품

일본지도가 그려진 병풍에는 푸른 바다와 금박 구름으로 둘러싸인 일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규슈와 시코쿠의 섬들은 혼슈 남서부의 주고쿠·간사이 지방과 마찬가지로 해안선이 자세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도호쿠 지방과 일본의 먼 북동쪽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해안선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병풍은 타원형 세계지도가 특징입니다. 중앙의 띠는 적도를 나타내며, 경도 10 도마다 붉은 표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시 지도 제작자의 해석에 따라 지역을 나타내는 데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지도와 마찬가지로

현대지도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 지역도 있고, 상당히 부정확한 지역도 있어 당시 대륙별 지식과 문서에 편차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 주위의 병풍 표면은 금박으로 덮여 있어 바다의 짙은 청색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